

【본부=로이터 연합】 유엔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<1970~1990년 세계여성>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잠재력 성취를 방해하는 성차별이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보고서는 아프리카와 브지역에서 생활수준의 로 도시 여

이 보건분야에서 얻은 이익 위협받고 있으며,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는 인구증가와 악화로 보건·여성분야의 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. 대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

역의 보건 및 교육 실태는 향상됐으나 직장과 의사결정 분야에 서 극심한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여성들이 전세계 노동력의 최소 14%를 구성하고 있는데도

여성차별 세계 곳곳 존재 비농업분야 임금격차 30~40%나

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직장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어 비농업 분야의 평균임금 격차가 30~40%에 달하는 데다 여성들은 주로 저임금직에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.

일본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은데도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, 싱가포르에서는 관리직을 맡은 여성이 1%를 밑돌고 있다.

캐나다는 여성들이 공학, 의학 등 전문직에 많이 진출한 국가로 지목됐으나 임금은 남성

에 비해 15~20% 떨어지는 수준이다.

이 보고서에 서문을 쓴 케아르 유엔 사무총

장은 "지난 20년 동안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권력·부·기회 등에서 남성들에게 많이 뒤지고 있다"고 지적했다.